

! 수도권 소식

“퇴폐업소 단속 소리만 요란”

무허가영업 적발 치중...안마시술소 한곳 없어

서울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야간 퇴폐업소 특별 단속이 무허가영업 적발 등 일상업무로 처리할 수 있는 단속이 대부분이고 퇴폐영업 등 이번 단속이 의도했던 적발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부터 2월24일까지 적발된 범규위반업소 중 영업정지처분 이상의 징계를 계획하고 있는 1천6백42개소 가운데 무허가 영업·전자오락기설치 영업 등 일

상업무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6백81건으로 41.4%나 되는 반면 유흥접객부 고용영업, 밀설 설치 퇴폐영업 등 이번 특별 단속이 의도했던 것은 1백69건으로 10.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도박 사행성 영업 1백48건(9.0%) △커튼·칸막이 설치 영업 1백32건(8.0%) △시간 외 영업 등 기타 5백12건(31.1%) 등이 영업정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소를 업

종별로 보면 △대중음식점의 무허가영업이 3백36건 등 모두 8백74건 △다방에다 전자오락기를 설치, 영업한 1백63건 등 모두 2백61건에 이르고 있는 반면 매매춘행위와 음란비디오 상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마시술소와 숙박업소는 각각 0건과 20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고된 단속으로는 음란·퇴폐영업이 적발되기 힘들다”며 “불시 단속, 시민신고에 따른 건별 단속 등 단속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